

國內 소프트웨어 開發에 앞장

病院업무·稅務 관리 시스템 등 첫선

올림픽 競技 情報체계 世界에 과시

서울신문 91.7.7 『科學에 산다』

忠南 大德 과학연구 단지에 들어서면 유달리 눈에 띄는 건물이 있다. 속이 빈 둥근 통의 중간지점을 위에서 아래로 잘라 놓은 것 같은 위에서 보면 흡사 말발굽처럼 보이는 8층의 시스템공학연구소가 바로 그것이다.

이 연구소안에 설치되어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는 국내 한대뿐인 슈퍼컴퓨터 앞에 마주서면 이 건물이 무엇을 본떠 만들어졌고 무엇을 하는 곳인가를 단번에 알아차리게 된다.

작게는 중·고등학생들의 시험 전산처리와 전국 각 대학의 대학원생·교수·연구원들의 온라인 슈퍼컴 이용 지원에서부터 병원관리 종합시스템, 컴퓨터 자동번역 시스템, 국세청의 세무관리 시스템, 자동차 번호판인식 시스템의 개발 등등, 건물이 상징하듯 이곳은 컴퓨터를 이용·응용하는 연구라면 국내에선 뭐하나 빠지는 것 없다고 자부하고 있는 국내 정보과학의 震源地이다.

슈퍼컴이 이 연구소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이곳엔 또 하나의 슈퍼컴 같은 존재가 있다. 소장 성기수(57) 박사.

그는 시스템공학연구소가 지난 67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부설 전자계산실로 첫걸음을 내디뎠을 때부터 이곳 책임자로 일해왔다. 그리고 이 연구소의 성장과 함께 그의 직책과 역할도 무게와 이름을 달리해 왔다. 이 연구소가 KIST란 종합 연구소의 한 귀퉁이를 차지한 작은 연구실 규모에서 연구원 4백 52명을 거느린 연구소로 커짐에 따라 그의 직책도 계산실장에서 개발센터 부장으로, 시스템 연구담당 부소장에서 전산개발센터 소장으로 점차 바뀌어 나갔다. 그리고 韓國의 정보과학기술의 수준도 그와 함께 속도를 더해 왔다.

70년 6월 국내 첫 데이터 통신의 개막을 비롯, 한글入出力 시스템(70년 11월), 光學문자관

독시스템 처리기술(71년 9월), 時分割 전자교환(EPBX) 시스템기본기술(77년 9월), 병원관리 종합시스템(MEDIOS), 건물의 구조물 평면해석 및 설계시스템(KISTRAS) 등이 모두 시스템공학연구소가 국내 과학기술계에 선사한 국내 최초의 기술개발 성공 사례들이다.

이 모든 성공적인 연구개발 사례가 연구 개발투자 관리 조정자로서의 그의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다. 당시 빈약했던 연구개발 환경 아래서 정보산업 분야에 가장 효율과 파급효과가 큰 분야들을 선정, 집중공략할 수 있게 했다는 사실이 그간의 그의 역할을 상징적으로 대변해 준다.

그의 성과는 지난 88년 올림픽 경기정보시스템(GIONS)의 개발로 절정에 이른다.

한국 기술수준으로는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하는 국제 올림픽위원회와 외국의 전산전문가들의 확신을 비웃듯 시스템공학연구소의 개발팀들은 순간의 경기 결과들을 눈감짝할 사이에 종합·정리, 컬러그래픽과 함께 관객들에게 제공해 주는 순 韓國產 경기 정보시스템을 탄생시켰다.

경기 결과를 채는 각종 전자계측 장비와 경기장의 컴퓨터를 우리식으로 연결시켜 이룩해 낸 이 기술적인 성취에 세계는 88올림픽의 場外금메달이라고 찬탄했다. 한국의 기술수준을 세계에 과시한 이러한 성취도 사실 성기수란 국내에 몇 안되는 연구개발 전문 경영인의 고집과 자신이 없었다면 엄두조차 못냈을 것이다. 그의 위치는 순수 과학자라기보다는 과학기술의 개발과 투자의 전문 경영인으로 표현되어져 왔다. 『우주선의 비행力學으로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 지 2년만에 석·박사학위를 딴 뒤 고민속에 빠졌지요. 국내에선 제 전공을 살려 계속 연구를 해 볼 데라고는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美國의 방위산업체들에서는 좋은 연구환경과 생활조건을 제시하고 있었고...』 결국 그는 과학자로서의 연구의 꿈을 포기한 채 귀국한다. 『학위준비를 할때 컴퓨터의 위력에 놀랐지요. 「그 위력을 과학기술의 연구와 일상생활에 이용해 보자. 그리고 컴퓨터의 응용기술을 연구해 다른 과학자들의 연구개발을 뒷받침해 주자」고 결심하고 귀국했지요.』

그의 이러한 결심은 연구개발 성과 말고도 2만 여명의 電算人力을 자신의 연구소에서 길러냈다는 자부심으로 결실을 맺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 고교졸업의 시청 말단직원이 국내 최고의 전산전문가로 변신하기도 했고 대학 졸업후 취직을 위해 교육과정에 참여했던 준실업

자를 박사로 만들어 놓기도 했다. 고집이 그를 특징짓는 성격이자 스타일이라면 성과주의는 그가 일을 처리하는 제일의 원칙이다. 그는 연구소의 20여명이 넘는 연구실장들을 성과에 따라 대접한다. 쏠권을 주기도 하고 심하게 간섭하기도 하고. 정보화의 전도사란 애칭을 갖고 있는 그의 가장 큰 바람은 슈퍼컴을 우리의 국력 수준만큼 갖는 것이다.

『일본의 대학·연구소는 1백 20여대의 슈퍼컴을 밤낮없이 돌리며 연구에 이용하고 있지요. 우리는 최소한 40대는 있어야 하는데 고작 1대뿐입니다. 슈퍼컴이 왜 필요하냐고요. 鳥銃의 위력에 화살이 비교가 됩니까?』